

#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Archives

설 문 원(Moon Won Seol)\*\*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시각예술아카이브 |
| 2. 예술기록의 정리와 분류       | 3.2 공연예술아카이브 |
| 2.1 예술기록의 범주와 특징      | 3.3 예술종합아카이브 |
| 2.2 정리와 분류의 원칙과 목적    | 3.4 분석종합     |
| 3. 예술기록의 정리와 분류 사례 분석 | 4. 제언 및 맺음말  |

### <초 록>

예술기록의 조직에 있어서 정리는 기록의 생산 및 축적의 맥락을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술아카이브에서는 출처 및 원질서의 원칙에 기반한 정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기록의 정리와 분류의 개념과 차이를 정리하고, 국내의 예술기록 정리와 분류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예술기록 조직업무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예술기록, 기록분류, 기록정리, 예술 아카이브,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 시각예술아카이브, 공연예술아카이브

### <ABSTRACT>

Archival arrangement is essential process to preserve the context of art archives creation and accumulation while classification is important to search archival collections by their topic, type or business process. But archival arrangement is not being taken seriously in most art archiv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issues of art archives in Korea, and to suggest some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organizing art archives more systematically. This paper begins with ident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and analyses some cases of visual and performing art archives in Korea and United States in terms of archival organiz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it gives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in Korean art archives.

Keywords: art archives, performing art archives, visual art archives, archival arrangement, classification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eol@pusan.ac.kr)

■ 접수일: 2011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1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3일

## 1. 머리말

최근 예술기록, 아트아카이브, 예술아카이브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사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에서 아카이브가 등장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 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되고 있다. 예술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실 위험에 처한 기록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립예술자료원은 2010년부터 예술기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예술기록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국립극장을 비롯한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의 공연예술단체에서 생산되는 예술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다.<sup>1)</sup>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브가 문을 열었고, 지역에서는 부산문화재단이 부산문화예술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웹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역시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집되어 서비스되는 방식은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예술활동의 증거로서 기록이 가진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 정보단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질서를 잡는 작업으로서의 정리(arrangement)는 거의 도외시되고 있었다. 분류와 정리는 단순히 기록의 검색 효율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을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기 때문에 예술기록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깊어져야 할 사안이다.

최근 국내의 예술기록관리 관련 연구에서 강조되는 점은 개별 예술작품 활동의 프로세스 분석이다. 프로세스별로 생산되고 수집되어야 하는 기록의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박주석(2011)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작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각 과정별로 산출되는 기록을 제시하였다. 손동유(2011)는 실황자료, 과정자료, 감상자료, 학술자료 영역을 포괄하는 예술기록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뮤지컬이라는 공연예술에 적용하여 각 영역별로 수집해야 할 기록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예술기록의 정리와 분류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지만,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기록화(수집과 생산) 관점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전통예술의 기록화를 위한 분류체계 제안(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권소현, 김익한 2010), 극단과 같은 조직에서 행해지는 예술활동의 기록화를 위한 프로세스 기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연구(정은진 2009; 박민구 2008)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전적으로 기획되는 기록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칫 예술활동이 이루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후적으로 수집되는 많은 보존기록(archives와 manuscripts collection)의 관리는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외 미술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한 정혜린, 김익한(2009)의 연구는 보존기록 관점에서의 예술기록관리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국립극장 공연예술아카이브. <<http://archive.ntok.go.kr>>. [2011.11.1 접근].

이 연구에서는 예술기록의 정리와 분류의 개념과 차이를 정리하고, 국내외 예술기록 정리와 분류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예술기록 조직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표 1>과 같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분야에서의 미국 사례를 각 1곳씩 선정하였고, 국내의 경우 예술기록의 정리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기관을 대부분 포함하고자 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모두 포괄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특히 예술아카이브에는 어떤 유형의 컬렉션들이 존재하는지, 계층적 정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록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존재하는지, 계층적 정리체계와 분류체계는 검색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2. 예술기록의 정리와 분류

### 2.1 예술기록의 범주와 특징<sup>2)</sup>

예술은 “학문, 종교, 도덕 등과 함께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예술 활동(창작, 감상)과 그

성과(예술 작품)를 총칭”한다(위키백과). 예술은 소리 예술(음악), 시각 예술(회화·조소 등의 미술, 건축), 언어 예술(문학), 종합 예술(연극·오페라·무용 등의 공연 예술, 영화)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예술의 유형별로 다양한 형식과 매체의 기록들이 생산된다.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기록은 그러한 활동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예술 기록이란 창작에서 감상에 이르기까지 예술 활동과정에서 생산·축적된 기록 전체를 일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술 활동별로 기록의 유형을 범주화하면 <표 2>와 같다. 회화, 소설, 희곡 등을 생산하는 활동뿐 아니라 연주나 실연(實演)도 1차 창작물을 토대로 한 또 다른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시나 출판 등은 예술작품의 배포와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 언론, 연구 활동은 감상과 관련된 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술분야마다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기록은 작품 자체가 갖는 휘발성 때문에 공연 실황 영상 및 녹음자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개인보다는 집단이 예술 활동에 관여

<표 1> 조사 대상 기관

분야 \ 나라	미국	우리나라
시각예술	미국미술아카이브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공연예술	뉴욕공연예술도서관	국립극장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한국춤화자료원, 문화포털 디지털 아카이브
예술종합		국립예술자료원

2) 이 부분은 필자의 “예술기록의 조직화와 분류”(예술기록관리전문가양성과정 교재)를 대폭 보강한 것임.

〈표 2〉 예술 활동별 기록의 유형

예술 활동의 유형		기록의 범주
창작	1차 창작	- 예술작품의 창작과정 중에 생산되는 기록(소설, 연극 대본, 음악 등) - 창작의 주체인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생산·접수한 기록 - 창작과정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생산된 기록(구술 기록 포함)
	2차 창작 (공연 및 실연)	- 음악, 무용, 연극, 오페라 등의 공연과 실연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 연주자, 연기자, 지휘자, 연출자, 공연단체, 극장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 - 공연 준비 및 실연과정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생산된 기록(구술 기록 포함)
전달		- 전시, 출판 등의 발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 큐레이터, 미술관, 화랑, 출판사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
감상		예술작품 및 연주, 공연 등에 대한 비평, 언론보도, 연구자료

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단체의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술과 같은 시각예술 기록에는 물론 미술관이나 단체 기록도 많지만 예술가 개인기록의 비중이 높으며, 스케치나 회화 등 예술작품에 준하는 자료가 포함되기도 한다. 정혜린, 김익한(2009)은 미술기록의 유형을 창작행위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미술 관련 조직의 활동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연구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시각예술기록의 경우 창작, 전달(전시 및 판매 등), 감상 등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형화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예술기록컬렉션에는 예술가가 소장하던 도서나 기타 출판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예술기록관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집·관리해야 할 것은 유일성을 지닌 1차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분류 및 정리의 관점에서 예술기록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창작과 관련된 예술기록에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되는 기록도 있지만 개인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술작품은 극히 개인적이고 개별화된 활동을 통해 창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도 사적으로 만들

어지고, 예술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개인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그 기간 동안 기록은 예술가가 만든 질서(질서의 수준은 다양하더라도)에 따라 관리된다. 이러한 기록은 대체로 예술가가 죽거나 은퇴한 후에 아카이브에 기증되거나, 수집가의 손을 거쳐 인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에 오게 된 기록의 경우 '인물컬렉션'의 특징을 반영한 정리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연이나 실연 등과 같은 2차적 창작 과정에는 연출자, 실연자 등의 개인은 물론 극단, 극장 등 다양한 조직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작업을 통해 진행되는 공연예술의 경우, 참여 조직들의 기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행위의 증거가 되는 연기자의 개인 대본, 지휘자의 메모가 기입된 악보 등은 개인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관의 행정 기록 외에 대부분의 공연예술기록은 개인기록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연예술의 경우 조직의 기록과 개인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서, 소리, 음성, 사진, 스케치, 스크랩

북, 동영상, 물건 등 기록의 유형과 형식, 매체가 매우 다양하며, 아트워크<sup>3)</sup> 등과 같이 기록이 예술작품 자체인 경우도 많다. 공연예술 기록의 경우, 공연 촬영물, 녹음테이프에서부터 무대디자인이나 공연을 촬영한 사진, 공연 팸플릿, 악보, 포스터, 출연자 정보, 공연 관련 연구기록 등 매우 다양하다(박성욱 2009). 특히 공연예술이나 설치미술은 현장성과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 등을 통한 현장 기록화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예술아카이브에서 시청각기록을 비중 있게 관리하며, 공연이나 연주실황 등이 담긴 오디오나 영상기록 등 특정 형식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사례도 많다.

넷째, 같은 작품이라도 여러 버전이나 여러 재현물로 존재한다. 가령 같은 연극 시나리오라도 공연의 형식이나 극단, 연출자, 공연 시기에 따라 다른 표현방식을 가진 재현물이 탄생하며 이는 또 다른 예술작품이 된다. 이때 하나의 문학작품이나 시나리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한 증거자료들이 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연이 행해진 순간을 시청각기록에 담는 것과 아울러 실연의 주안점, 연출 의도와 지시문, 작품 설명 등을 함께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차 창작자의 의도, 연출자, 실연자의 작품 해석은 예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채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구술기록은 예술기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예술작품의 감상활동은 출판물이나

언론기사 등에 담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료가 작품이나 예술가별로 수집되어 보존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예술작품이나 예술가에 대한 감상, 비평, 연구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술가나 연구자, 기타 예술 활동 종사자가 스크랩이나 클리핑 자료로 정리한 것을 아카이브로 이관한 경우 역시 기록관리 영역에 포함되며 도서나 기사, 잡지 등이라 할지라도 예술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경우 기록으로 관리된다. 이는 예술가가 어떤 자료를 읽었는지를 증거할 수 있으며, 때로는 출판물이 개인기록 컬렉션에서 하나의 시리즈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기관이 예술가나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수집한 경우(주로 사본)에는 정보검색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분류체계나 관련 예술기록과의 통합적 분류체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감상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기록은 대체로 분산적이거나 파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카이브나 도서관이 그 연관관계를 찾아 수집하여 조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2.2 정리와 분류의 원칙과 목적

### 2.2.1 정리의 원칙과 목적

서구의 기록학에서 정리(archival arrangement)는 출처(provenance)와 원질서(original order)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고 편철, 레이블 부착, 상자편성 등을 통해 물리적인 질서를 잡는 작업을 의미한다.

3) 아트워크(Artwork)는 시각 예술에서의 작품 등을 의미하는데, 복제해도 좋을 정도로 정교하게 마무리된 이미지, 예술가가 카메라 또는 다른 기계적 수단으로 마련한 전시용 미술작품이나 레이아웃 작업을 지칭하기도 한다(한국 위키백과).

철학사전에 따르면, 집합체를 작은 집합단위로 나누는 작업은 구분이고, 이에 반해 분류는 개별 개체나 작은 집합단위를 큰 집합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의미한다(임석진 외 편저 2009).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정리는 구분의 개념과 유사하다. 전체 이관된 기록물 중에서 기록 컬렉션을 구분하고, 기록컬렉션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작업이 바로 정리이기 때문이다. 정리는 기록집합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집합체별 작업이기 때문에 분류체계를 미리 만들어놓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일정한 속성(주제, 업무, 유형, 형식, 용도 등)을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진 분류체계에 따라 대상을 분류함으로써 대상을 속성별로 모으는 자료 분류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

보존기록을 출처의 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기록이 생산·축적된 맥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원래의 기록 집합체 속에서 기록의 위치가 갖는 미묘한 차이를 통해 창작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가령, 날짜 표시가 없는 개별적인 드로잉들은 그것만으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작가 자신이 만들어낸 순서로 배열된 스케치의 컬렉션을 통해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정명주 2006). Terry Eastwood는 정리가 “생산과정 중에 형성되는, 문서나 기록의 자연적 축적과정(accumulation)을 확인하는 것”이며 기록과 기록간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술기록에는 특히 개인기록이 많은데, Catherine Hobbs(2010)는 개인기록의 경우, 정리 체계에 생산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무질서한 듯 보여도 기록의 배치상태에는 생산

자의 당시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작은 흔적이라도 섬세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개인 기록의 경우 활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질서를 재구성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의 원칙에 따라 보존기록을 정리하려면, 우선 ‘퐁(fonds)’을 존중하고, 기록을 집합적으로 관리하되 원질서(original order)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구분해 내어야 한다. 퐁은 기록을 생산한 조직 전체의 기록, 다시 말해 최상위 계층의 기록 전체를 의미하며, 매뉴스크립트의 경우 기록 컬렉션에 해당한다. 즉, 퐁이나 컬렉션은 기록의 생산자(creators)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기록관리에서 생산자는 기록을 직접 작성하거나 집필한 자라기보다는 “기록집합체를 축적한 주체”이다. 예술가를 중심으로 수집된 컬렉션의 경우, 예술가 자신이 작성한 기록뿐 아니라 그가 받은 편지나 자료, 각종 수집 자료 등이 포함되지만 이 기록 집합체의 생산자는 그 예술가이다. 예술기록이 축적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자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고, 기록컬렉션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정리 작업에 있어서 출처의 원칙과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은 계층적 관리의 원칙이다. 이는 출처 및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수직적으로 계층화하여 관리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형성된 기록계층별로 집합적 기술을 해줌으로써 기록의 생산 및 축적 맥락을 보호해야 한다. 정리는 계층적 관리와 집합적 기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보존기록을 정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설문원 2011).

첫째, 기록의 맥락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분류체계에 기록의 생산맥락과 구조를 반영함으로써 기록과 생산자, 기록과 활동, 기록과 기록, 활동과 활동 간의 관계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기록의 진본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기록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한다. 기록을 계층별로 묶고 계층 간을 연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기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정리는 기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정리를 통해 기록의 계층이 생성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 조직에서 분류와 기술은 선후행 관계를 갖는다.

#### 2.2.2 분류의 원칙과 목적

보통 현용이나 준현용기록의 논리적 질서를 편성하는 작업은 분류라고 칭한다.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축적한 기록은 업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록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5489에서도 업무분석에 근거하여 업무분류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활동에서 산출된 기록들을 연계하거나 관련 활동들을 연계함으로써 기록을 계층화하게 된다. 오케스트라, 극단, 무용단 등의 공연단체나 미술관, 예술가 협회 등의 조직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용 단계에서부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활동과 기능에 근거한 분류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성된 조직 기록을 영구기록관리기관,

즉 아카이브에서 수집할 경우, 그 조직의 기록을 다른 컬렉션이나 다른 조직의 기록과 섞지 않으며, 원래의 내적 질서, 즉 업무나 기능으로 체계화된 질서를 존중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술아카이브에서 현용기록이 아니라 보존 기록을 위하여 연역적으로 미리 분류체계를 개발하기도 하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제나 토픽, 유형별 기록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리는 반드시 집합적 기술을 위하여 계층적 체계를 유지하지만, 분류의 경우 반드시 계층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분류체계를 수평적으로 개발하여 이용자가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흩어져 있는 기록을 모으거나 결락된 부분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의 일환이다. 기록이 아직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맥락분석과 기록유형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분류체계를 개발한다. 예술작품, 예술행사,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생산되어야 할 기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술활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조사하고, 활동별 기록유형을 조사한 분류표를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수집 전략을 세우게 된다.<sup>4)</sup>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분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분류인지, 기록의 체계적 수집과 기록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분류체계 개발인지를 구분해야 할

4) 연극 행위과정별 발생기록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개발한 분류표(정은진 2007)나 무형문화재 기록화를 위한 분류체계 사례(권소현, 김익한 2010) 등이 있다.

것이다. 기록화작업을 위한 분류체계의 경우 검색 분류체계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다.

### 3. 예술기록의 정리와 분류 사례 분석

#### 3.1 시각예술아카이브

##### 3.1.1 미국미술아카이브

1954년 설립된 미국미술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 이하 AAA)는 스미소니언(Smithsonian Institution) 산하 기관으로 지난 200년 동안의 미국 미술과 관련된 16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술가, 미술품 매매업자(dealer), 수집가의 서신, 일기, 스크랩북, 비평가나 연구자의 원고, 박물관, 미술관, 학교, 협회의 업무 및 재정기록, 미술계 인물 및 행사 사진, 스케치 및 스케치북, 회귀 출판물, 영화 및 녹음, 영상 자료, 미술 분야 세계 최대의 구술사 컬렉션이 포함된다. AAA에서는 기록을 컬렉션<sup>5)</sup>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6,000여 개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sup>6)</sup>

AAA는 컬렉션 계층에 대한 집합적인 기술(description)을 제공한다. 스미소니언 소장 기록에 대한 통합 온라인 목록인 “Smithsonian

Institution - Archives, Manuscripts & Photographs Catalog(SIRIS)”을 이용하여 컬렉션별 기술목록(catalog)과 검색도구(finding aids)<sup>7)</sup>를 검색할 수 있다. SIRIS 시스템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컬렉션 목록이 제공되며, 컬렉션 목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색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 컬렉션별로 작성된 검색도구를 통해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들의 계층구조, 내용, 맥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컬렉션 내부의 정리체계는 검색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컬렉션마다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소규모 컬렉션의 경우 기술목록만 제공하고 있다.

AAA의 기록컬렉션의 출처는 미술가, 미술가 그룹, 미술관, 미술단체 및 협회, 미술학교, 수집자 등 다양하다. 화가, 벽화가, 삽화가로 이름을 남긴 John White Alexander(1856-1915) 컬렉션은 11개 시리즈로 정리되며, 그 내역은 <표 3>과 같다. 이 컬렉션은 1978년과 1981년에 그의 손녀가 기증한 컬렉션으로서, 각 시리즈는 대체로 기록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Alexander의 활동영역(협회활동, 법무 및 재정 관련 활동, 저술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리즈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원래의 질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컬렉션으로는 ‘John White Alexander letter to Miss de Sansseur, [undated]’이 있는데, Charles E.

5) ‘컬렉션’은 통상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의미하고, 기록이 어떤 사람이나 주제, 사건 등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축적된 기록집합체를 일컫는다. 업무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기록물군(records group)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6) Archives of American Art 홈페이지, <<http://www.aaa.si.edu/aboutus>>. [2011.11.10 접근].

7) 여기서 ‘검색도구’는 각 컬렉션에 대한 팸플릿 형식의 기술형 인벤토리이다. 미국 NARA가 1940년대 이후 채택해온 검색도구 형태로서, 컬렉션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 컬렉션을 구성하는 모든 시리즈의 목록이 포함된다. 각 시리즈 안에는 파일들이 원질서대로 배치된다. 이러한 검색도구는 특정 컬렉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떤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는 가이드가 있다(Miller 2002, 대통령기록관 2009).



〈표 3〉 John White Alexander 컬렉션의 정리체계(AAA 소장)<sup>8)</sup>

no	시리즈	기록 설명(대략 1880-1986, 주로 1935-1977)
1	전기(Biographical) 정보, 대략 1887-1968 (상자 1, 대형 23; 0.1 피트)	알렉산더, 그의 가족, 그와 교분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글, 알렉산더 부인의 구술자료(1928년 생산) 등
2	서신, 대략 1870-1942 (상자 1; 0.7 피트)	알렉산더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 예술계 유명인사와 동료예술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편지, 작은 스케치를 그려 넣은 봉투나 삽화가 들어간 편지도 있음
3	협회 및 회원 가입, 대략 1897-1918 (상자1; 2개 폴더)	경력 관련 증거가 포함된 협회 및 회원가입 기록, 다양한 미술단체에 흩어져있는 알렉산더의 회원가입 기록
4	법무 및 재무 기록, 1775, 1896-1923 (상자 1; 5개 폴더)	미술작품 및 전시와 관련된 법무 및 재무 기록
5	메모와 저술, 대략 1875-1943 (상자1-2; 0.3 피트)	알렉산더의 연설, 그의 부인이 쓴 단문과 수필, 여러 저자가 알렉산더에 대해 쓴 글
6	상품/상장과 기념품, 대략 1870-1944 (상자2, 대형 24; 0.8 피트)	MacDowell Club의 Alexander Memorial Studio 설계 및 건설 관련 기록, 각종 상장과 상패, 메달, 알렉산더 사후 예술단체들의 추모문 등
7	예술작품, 대략 1875-1915 (상자2-3, 14-16, 대형 23; 1.5 피트)	상업적 삽화, 카툰, 벽화, 회화, 여행과 관련된 스케치가 그려진 13권의 스케치북, 12개의 낱장 드로잉과 스케치, 기타 인쇄소에서 제작된 고품질의 작품 복제본 등. 그는 편지에도 군데군데 많은 스케치를 남김
8	스크랩북, 대략 1877-1915 (상자 17-22; 1.8 피트)	1877-1915까지 알렉산더의 경력과 관련된 전시 카탈로그, 안내장, 초대장, 사진, 흩어져 있던 편지 등이 담긴 8권의 스크랩북
9	인쇄자료, 대략 1891-1945 (상자 3-4, 대형 23; 1.5 피트)	인쇄자료에는 기타 전시 카탈로그와 후반기 클리핑 자료, 그의 부인의 경력 및 기타 주제와 관련된 클리핑 자료들이 포함됨
10	사진, 대략 1870-1915 (상자 4-13, 대형 25-43, RD 44-45; 5 피트)	저명 사진가가 찍은 많은 알렉산더 초상사진, 친구, 가족, 각지에 있었던 스튜디오 사진, 풍경 사진, 연속적으로 촬영된 벽화사진 컬렉션 등
11	박물, 대략 1899-1915 (상자 6, 박물류 캐비닛; 0.4 피트)	팔레트, 동판, 마크 트웨인의 자화상 캐리커처가 새겨진 기념품 등의 박물

Feinberg가 기증한 기록 1건(마이크로 자료)으로 구성되는 컬렉션이다.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John White Alexander 컬렉션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술가 컬렉션의 또 하나의 사례로,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초현실주의 화가이며 작가, 미술가, 재즈 음악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Gertrude Abercrombie(1909-1977)의 개인문서 컬렉션을

살펴볼 수 있다. Gertrude Abercrombie Trust의 집행인이 1978년과 1986년에 기증한 이 컬렉션은 전기(Biographic)자료, 서신, 예술가 파일, 저술과 메모, 업무 기록, 아트워크, 인쇄자료, 녹음자료, 재산 기록, 스크랩북, 사진 등 11개의 시리즈로 정리된다. 저술 활동, 업무활동 등과 같이 활동별로 구분된 시리즈도 있지만 이 경우도 대체로 기록 유형별 정리체계가 적

8) SIRIS의 기록목록을 표로 재구성. 이 컬렉션의 경우 문서의 상당량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검색도구가 웹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용되고 있었다.<sup>9)</sup>

미술관 컬렉션의 사례로는 ACA Galleries 컬렉션을 살펴보았다. ACA(American Contemporary Art) Galleries는 1932년에 Herman Baron 등이 설립한 뉴욕의 미술 화랑으로서 이 컬렉션은 Baron의 부인이 AAA에 1965년-1966년에 기증한 기록들이다. 이 컬렉션의 시기 범주는 1917년부터 1963년까지이며 창립자인 Herman Baron과 많은 미술가들의 저술, 인쇄자료, 서신들, 미술가와 미술품 수집가들의 사진, 예술 작품, 전시기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매카시즘에 저항한 예술가들,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가들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이 컬렉션은 5개의 시리즈로 정리되며, 이중 시리즈 5는 다시 7개의 하위 시리즈로 구분된다. 미술관 컬렉션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미술관 기능/활동 중심의 정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체계가 개인컬렉션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술 단체인 American Federation of Arts 컬렉션은 조직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정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19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이 단체의 컬렉션에는 연맹의 설립과 역사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미술 발전과 연구 지원을 위하여 연맹이 후원한 미국 내외에서의 전시와 프로그램의 역사가 담겨 있다. 컬렉션의 서가 연장길이는 78.6 피트이고 대부분 연맹이 AAA에 1964년-1966년에 기증한 기록들이다. 이 컬렉션은 <표 5>과 같이, 업무활동별로 8개의 시리즈로 정리되었고, 일부 시리즈는 하위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다.

<표 4> ACA Galleries 컬렉션의 정리체계(AAA 소장)<sup>10)</sup>

no	시리즈	
1	서신, 대략 1930년대-1960년대 (상자 1: 0.25 피트)	
2	저술 및 메모, 1938-약 1960년대 (상자 1: 8개 폴더)	
3	인쇄자료, 1939-1960 (상자 2: 4개 폴더)	
4	사진, 대략 1930년대-대략 1960년대 (상자 2: 0.25 피트)	
5	Herman Baron의 개인문서, 대략 1910년대, 1940년대-1960년대 (상자 2-3: 0.3 피트)	
	no	하위시리즈
	1	상자2 폴더11 서신, 대략 1910년대-1930
	2	상자2 폴더12 Baron의 단편(Short Stories), 1925-1930 (일부 스캐닝됨)
	3	상자2 폴더13 Glazier's Journal/ Glass Digest, 1924, 1963 (일부 스캐닝됨)
	4	상자2 폴더14 "Fist of Wickedness," Herman Baron의 작품으로 추정, 대략 1957
	5	상자2 폴더15 부고 기록(Obituaries), 1961-1962
	6	상자3 폴더1-2 메모, 1940s-1960s (2개 폴더)
7	상자3 폴더3 사진, 대략 1917, 대략 1940년대-1960년대	

9) 검색도구(A Finding Aid to the Gertrude Abercrombie papers) 참조.

10) 검색도구(A Finding Aid to the ACA Galleries Records)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표 5〉 American Federation of Arts 컬렉션 정리체계(AAA 소장)<sup>11)</sup>

no	시리즈	
1	이사회, 대략 1895-1968 (상자 1-3)	
	no	하위시리즈
	1-1	조직과 규정, 대략 1895, 1913, 1952-1959
	1-2	회의록, 1909-1963, 1968
2	행정 문서, 1910-1966 (상자 4-8)	
	no	하위시리즈
	2.1	알파벳 파일, 1910-1966
3	특별 프로그램, 1950-1967 (상자 9-13)	
	no	하위 시리즈
	3.1	Artists in Residence (포드 재단), 1957-1966
	3.2	시각 예술가를 위한 포드 재단 프로그램
	3.3	박물관 기증자 프로그램, 1959-1967
	3.4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순회전시 프로그램, 1959-1966
	3.5	Picture of the Month, 1951-1958
4	연도별 정기총회, 1912-1963 (상자 14-16)	
	전시 파일, 1934-1969 (상자 17-78)	
5	no	하위시리즈
	5.1	전시 일반, 1942-1962
	5.2	순회 전시, 1934-1959
	5.3	연례 전시, 1951-1969 (AFA nos. 51-1 through 69-20)
	5.4	연례 전시 문서 파일, 1965-1967 (AFA nos.65-1에서 67-29)
	5.5	전시를 위한 보고서 양식, 1948-1953
	5.6	기타 전시, 1951-1968
	5.7	국무부 전시, 1949-1952
	5.8	Metropolitan Museum of Art 전시, 1950-1956
	5.9	Contemporary Berlin Artists, 1950-1956 (AFA no. 48)
	5.10	Contemporary Color Lithography, 1951-1954 (AFA no. 96)
	5.11	Imaginary Portraits, 1951 (AFA no. 99)
	5.12	Metropolitan Museum of Art, Minishows, 1951-1956
	5.13	Life Exhibitions, 1951-1959
	5.14	Virginia Museum of Fine Arts 전시, 1952-1956
	5.15	Addison Gallery 전시, 1953-1955
	5.16	취소된 전시, 1953-1964
	5.17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전시, 1961-1964
	5.18	거절당한 전시, 1961-1968
	5.19	제안된 전시, 1964-1967
5.20	기타 전시 시설 사진, 연대미상	
6	인쇄자료, 1990-1993 (상자 78)	
7	기타 파일, 1926-1962, 연대미상 (상자 79)	
8	대형 자료, 1890, 연대미상 (대형 폴더들)	

11) 검색도구(American Federation of Arts: A Finding Aid to the American Federation of Arts Records)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이 컬렉션에 대한 검색도구에서는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래 정리체계의 일부분을 조정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sup>12)</sup> 조직의 기록물인 경우 원질서를 존중하되 생산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혼란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원래 질서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AA 웹사이트에서는 생산자명의 알파벳순이나 토픽별로 컬렉션 기술목록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토픽은 아프리카계 미국 미술, 아시아계 미국 미술, 라틴계 미국 미술, 공예, 건축과 디자인, 뉴딜, 여성, 미술관 기록, 일기, 사진, 스케치와 스케치북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밖에 구술기록, 디지털

화 이미지(Image gallery)에 대해서는 건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3.1.2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브

백남준 아트센터의 아카이브와 도서관은 작가 백남준과 그의 작품 세계, 그리고 아트센터와 관련한 역사적 기록 및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아카이브는 작가 백남준과 그의 작품세계, 아트센터와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조직이다.<sup>13)</sup> 소장자료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브에서는 백남준과 관련된 일차 자료 컬렉션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표 6> 백남준 아카이브 및 도서관의 소장 자료 유형

	유형	내역
아카이브	비디오 아카이브(2009-2011)	- 검색시 film/video로 표현 - 2,285개의 유메틱 테이프 포함 - 디지털형태로 복제
	인터뷰 프로젝트(구술사)(2009-2010)	
	백남준 아카이브 컬렉션(2009-)	- 편지, 사진, 그래픽아트, 책, 오브제 등의 컬렉션 - 출처별로 구분
	백남준 아트센터 기관 관련 기록(2009-)	- 아트센터 및 건립 추진팀이 생성한 기록물 - 행정, 전시, 건축기록 등 기능분류 + 지류, 사진, 비디오등 형식분류
도서관	회귀본 컬렉션(2009-)	- 아트센터가 구입한 회귀본 - 회귀성 및 가치를 가지는 도서 및 영상자료
	출판자료(2009-)	- 도서, 도록, 잡지, 포스터, 경매기록 등 - 일반/백남준으로 구분
	미디어(2009-)	- 연구용, 전시 제작용으로 수집된 오디오, 비디오, 사진 등
	클리핑(2009-)	- 잡지, 신문기사, 스크랩 등 - 디지털화
	웹 참고자료(2009-)	- 블로그, 연관자료 링크를 하거나 프린트 후 보관 - 참고자료, 경매결과 등

자료: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브 담당자의 이메일 면담(2011. 10. 20) 내용

12) 일부 중복된 파일링시스템을 다른 시리즈 등으로 통합하고 대형 자료는 별도의 시리즈로 정리.  
13) <<http://www.njartcenter.kr/kr/>>. [2011.10.20 접근].

있다. 백남준과 함께 작업했던 동료 작가, 지인, 수집자가 생성하고 수집한 일차 자료로서 백남준의 전시 및 일상과 관련한 서신, 사진, 오브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슈야 아베 컬렉션,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컬렉션, 에릭 안테르시 컬렉션, 갤러리 윈 컬렉션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업 소스로 활용되었던 영상물들로 구성된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sup>14)</sup>

백남준 아트센터 도서관의 OPAC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와 아카이브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의 경우 컬렉션 계층과 건 계층에 대한 기록검색이 가능하다. 컬렉션 계층 목록에서는 다시 검색도구<sup>15)</sup>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백남준이 작업해 왔던 비디오 작품 및 작업 소스, 다큐멘터리 및 기타 영상물 등 비디오 2,285 점으로 구성된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해서는 현재 리스트 형태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슈야 아베 컬렉션, 신성전자 컬렉션, 갤러리 윈 컬렉션 등 3개 컬렉션에 대해 검색도

구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 정리체계는 미국의 AAA 등에서와 같이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슈야 아베 컬렉션은 백남준과 함께 작업했던 일본인 테크니션 슈야 아베가 협업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백남준의 지인으로서 아베가 소장하던 백남준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2008년에 생산된 것들로서 백남준과 주고받은 일본어와 영어로 된 서신, 백남준과 함께 찍은 사진, 도록과 브로셔, 백남준 작품의 회로도, 판화와 드로잉, 백남준 관련 기사 스크랩, 백남준 전시 관련 출판물, 노트 및 메모, 작품에 사용된 부품과 오브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리즈는 기록 유형별로 구분되고 시리즈 아래에서는 다시 자료 형태(포맷)별로 구분되고, 그 아래에서 자료명의 자모순으로 배열된다(〈표 7〉 참조).

갤러리 윈 컬렉션은 백남준과 갤러리 윈이 협력하여 기획한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자료, 백남준이 갤리 윈에 보관을 요청했던 오브제들과 도서로 구성된다(〈표 8〉 참조).

신성전자 컬렉션은 백남준과 함께 설치작업

〈표 7〉 슈야 아베 컬렉션의 정리체계 (백남준 아트센터)

no	시리즈	내역
1	서신	백남준과 아베, 아베와 지인들이 주고받은 편지, 엽서, 연하장
2	아트워크	백남준이 아베에게 선물로 보낸 판화와 드로잉, 아베가 그린 백남준 작품의 회로도
3	스크랩	아베가 수집한 백남준 관련 신문과 잡지 기사 스크랩
4	출판물	각국에서 개최된 백남준 전시 도록, 포스터, 플라이어, 브로셔, 플렉서스 작가인 엘리슨 놀즈와 볼프 보스텔의 텍스트와 도록
5	사진	아베가 한국방문시 찍은 사진, 백남준과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로보트 K-456〉의 일본 거리 퍼포먼스 사진 등
6	기타	작품에 사용된 부품, 수와치에서 제작한 백남준 기념 손목시계, 미국 기념주화, 백남준이 아베에게 쓴 노트, 아베가 기록한 노트 등

14) 〈<http://www.njpartcenter.kr/kr/research/archive.asp>〉. [accessed 2011.11.5 접근].

15)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이용자 안내문서’ 혹은 ‘finding aid’로 부르고 있다.

〈표 8〉 갤러리 원 컬렉션의 정리체계 (백남준 아트센터)

no	시리즈	내역
1	시청각물	KBS가 제작한 백남준 인터뷰(1992), EAI가 배급하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들, 머스 커닝햄의 다큐멘터리 자료, 요셉 보이스의 영상자료, 갤러리 원의 정기용 대표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의 디지털 버전 등
2	오브제	백남준이 작품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했던 엔티크 TV 케이스, 자전거, 작은 장승, 1993년 갤러리 원의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의 사인이 들어간 목제 입간판 등
3	출판물	백남준이 갤러리 원에 기증한 도서

〈표 9〉 국립현대미술관의 비도서자료 유형구분 및 배열방법

유형구분		배열방법	
미술인자료		작품분류별/개인별 자모순	
전시 팸플릿	국내	개인전	등록 작가-장르별 코드 부여, 미등록 작가-작가명 자모순
		단체전	등록 단체-고유번호 부여, 미등록 단체-단체명 자모순
		기획전	주제별/날짜순
	국외	개인전	작가명 자모순
		단체전	전시시작 날짜순
미술기사		주제별 혹은 날짜순으로 스크랩	
국외미술관자료		미술관별/과일별 자모순	
슬라이드		장르별/작품분류별 자모순	
시청각자료(비디오 테이프, CD, DVD)		제목(전시명 등)의 자모순	
기획전 도록, 기타 출판물		전시주제별, 전시시작 날짜순	

출처: 정혜린, 김익한(2009), 186쪽 참고, 국립현대미술관 사서와의 면담(2011.12.10)을 통해 부분수정

을 하였던 비디오 설치 전문업체인 신성전자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로 생산 시기는 1971년-1999년(주로 1992년-1995년)이다. 백남준 작품의 소스로 사용되었던 미디어 자료, 메모와 미완성 프로젝트 소개서, 백남준 전시 브로셔, 작품 사진, 백남준 기사 스크랩, 백남준의 습작과 선물로 받은 페인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리는 “아이템의 가나다순”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검색도구를 살펴보면 메모, 영상자료, 브로셔, 사진, 클리핑, 페인팅 등으로 기록유형과 매체별로 분류되어 있다.

### 3.1.3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아카이브 기능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서자료실에서 전시관련 비도서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도서자료에는 미술인명 및 자료 DB 구축사업에서 수집된 미술인자료(작품과 관련된 작가자료), 전시팸플릿, 미술 기사철, 국외 미술관 자료,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CD/DVD, 포스터, 기획전 도록 및 기타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정혜린, 김익한 2009, 183). 이밖에 작품보존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자료로서, 소장 작품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수집되었지만

작품으로 등재될 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작품(평가를 거쳐 작품으로 등재될 수 있음), 미술작품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있는 기록이 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앞글, 184).

## 3.2 공연예술아카이브

### 3.2.1 뉴욕공연예술도서관

뉴욕공연예술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은 뉴욕 공공도서관(NYPL)에 소속된 네 개의 연구도서관 중 하나이다. 1888년 레녹스 도서관의 음악컬렉션에서 시작하여 1965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도서, CD, 비디오, DVD 등 공연예술과 관련된 많은 일반자료뿐 아니라 아카이브 성격을 띠는 다양한 연구컬렉션(Research Collections)을 소장하고 있다.<sup>16)</sup> 공연예술에 관련된 9백만 점 이상의 실물자료 중에는 “사진, 실황영상, 악보원본, 프로그램, 포스터, 윌리엄슨, 스크립트, 의상디자인, 조명디자인, 큐시트, 세트모델, 서신, 공연행정서류, 신문스크랩” 등 예술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많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배우, 극작가, 음악가, 안무가, 디자이너 등 공연예술계 주요 인물들의 작업흔적이 담겨있는 컬렉션을 통해 창작을 위한 수많은 발상과 시행착오, 사건의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장지원 2009). 공연실황이 담긴 각종 영상자료는 기록컬렉션이 아니라 일반자료로 관리되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 공연예술도서관의 기록 컬렉션(Research

Collection)은 춤 기록(Jerome Robbins Dance Division), 음악 기록(Music Division), 녹음자료(Rodgers and Hammerstein Archives of Recorded Sound), 연극 기록(Billy Rose Theatre Division), 영화 및 테이프 기록(Theatre on Film and Tape Archives)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각 division별로 컬렉션별 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휘발성 있는 공연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1970년부터 다양한 공연 실황 및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어 보존하는 TOFT(Theatre on Film and Tape)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일 년에 약 60~70개 정도의 작품을 선정하여 극단과의 합의 하에 공연영상기록을 제작하고 있다(장지원 2009).

공연예술과 관련된 기록에는 예술가, 수집가,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춤 기록을 관리하는 Jerome Robbins Dance Division의 컬렉션 중에서 두 개를 사례를 살펴보았다. Jerome Robbins Dance Division은 매우 광범위한 종합적인 춤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1944년에 설립된 이후 발레, 전통춤, 현대무용, 사교댄스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무용가, 비평가, 기자, 출판인, 영화제작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컬렉션 계층에 대한 목록 검색이 가능한데, NYPL의 온라인목록(OPAC)에서 Archives and Manuscripts를 유형을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 검색결과로 제시되는 목록에는 검색도구로서 ‘Guide’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16) <<http://www.nypl.org/locations/lpa>> [2011.10.20 접근].

는 AAA의 검색도구와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를 통해 해당 기록컬렉션 내의 정리체계와 기록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AAA와 마찬가지로 통합검색시스템에서 컬렉션 계층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고, 컬렉션에 속한 기록들은 컬렉션별 검색도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예술가의 측근 인사가 수집한 기록컬렉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Irma Duncan Collection of Isadora Duncan materials, 1914-1934”는 현대무용가 Isadora Duncan(1877-1927)의 양녀인 Irma Duncan이 가지고 있던 기록들로서, 생산자는 Irma Duncan이다. 183개의 폴더(약 300 건)가 포함된 이 컬렉션은 4개의 시리즈와 하위시리즈로 나뉘는데 정리체계 내역은 <표 10>과 같다. 서신에는 Irma Duncan이 Isadora Duncan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 Irma Duncan이 Isadora Duncan에게 보낸 편지로서 주로 던컨이 러시아에 체류하던 시기인 1921-24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다양한 타이핑 원고와 노트류, 클리핑 자료, 주요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서신과 원고들은 관련 도서로 출판되었으나 원 사료는 뉴욕공연예술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이 컬렉션의 경우, 주로 이사도라 던컨에 관한 사료로서의 가치 때문에 수집된 기록이지만 이사도라 던컨 컬렉션으로 재구성하는 대신 이 컬렉션의 생산자인 Irma Duncan이 만든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Irma Duncan 컬렉션의 정리체계 (NYPL)<sup>17)</sup>

no	시리즈	
I	서신	
	no	하위시리즈
	A	이사도라 던컨의 편지
	B	이사도라 던컨에게 보낸 편지
II	원고(Manuscripts)	
	no	하위시리즈
	A	이사도라 던컨의 자전적 원고
	B	이사도라 던컨의 글
	C	노트
	D	프로그램 관련 자료
E	기타 원고	
III	클리핑 자료	
IV	주요 기사(Memorabilia)	

공연단체 컬렉션 사례로는 “American Tap Dance Orchestra records, 1988-1995”를 살펴 보았다. 뉴욕에서 1986년 설립된 American Tap Dance Orchestra(ATDO)는 비영리 탭댄스 단체로서 현재는 American Tap Dance Foundation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8-1995까지 이 단체의 활동이 담긴 컬렉션에는 회의 안건과 회의록, 서신, 청중들의 보고, 회계, 재정 문서, 광고 문안,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사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상자분의 이 컬렉션은 6개의 컨테이너로 구분되는데 1) 홍보 및 보조금 정보(1990-1993), 2) 이사회 자료(1989-1994), 3) 서신(1990-1995, 연대미상), 4) 서신-기금모집(1990-1995), 5) 재무기록(1988-1994), 6) 목적문(Statement of Purpose, 1992) 등과 같이 문서 유형별로 나누어 알파벳순으로 배열되는 정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다.<sup>18)</sup> Carl Schlesinger가

17) 검색도구(Finding Aid for Irma Duncan Papers, 1905-1977)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18) Guide to the American Tap Dance Orchestra records 1988-1995(S) 참조.



1997년 기증한 기록들이며, 생산자는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다.

예술평론가 컬렉션으로는 “Arthur M. Abell papers, 1829-1976, 1905-1958(주 생산시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의 음악평론가 Arthur M. Abell(1868-1958)은 1893년-1918년에 Musical Courier지의 베를린 특파원이었고, New York Times 및 기타 출판물의 음악평론가로 활약했다. 브람스, 스트라우스, 푸치니, 뱀파티니, 그리그와의 대화를 회고하는 “Talks with Great Composers”의 저자이기도 하다. 전직 바이올리니스트이며, 많은 유명, 무명 음악가들과 교

류했던 그의 컬렉션 규모는 5 입방 피트(17 상자)이며 정리체계는 <표 11>과 같다. 서신류와 비서신류로 구분하고, 그밖에 150여 건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음악가의 초상화와 사진류, 방명록 카드 등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다.

American Ballet Theatre(ABT) 컬렉션은 특정 공연단체 기록이지만 아카이브가 여러 출처로부터 수집한 인위적 컬렉션 사례이다. 29개 상자와 1개의 대형 상자로 구성되며 서가연장 길이는 14.5 피트로 비교적 규모가 큰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전기적 파일, 브로셔, 클리핑자료, 서신, 사진, 프로그램, 기념도서, 홍보

<표 11> 음악 평론가 Arthur M. Abell 컬렉션의 정리체계 (NYPL)<sup>19)</sup>

no	시리즈	
I	서신류 ※ 편지 발신자별로 구분한 후 알파벳순 정리	
II	비 서신류	
	no	하위시리즈
	II/1	서명이 들어간 예정표
	II/2	콘서트 프로그램
	II/3	계약서
	II/4	리스트 페스티벌(Budapest, 1911) 관련 자료 ※ 방명록 카드(calling cards), 편지, 전신, 초대장, 프로그램
	II/5	기타 자료
	II/6	자필서명편지 ※주로 Arthur Abel이 받은 편지
	II/7	신문 및 잡지 기사 클리핑
	II/8	연회 설명 초안. Arthur Abell 작성
	II/9	훗날 유명인이 된 베를린 데뷔 인물 자료(사본)
II/10	Brahms, God and insp	
III	그림 및 사진(Iconography) ※ 초상화, 사진, 포스터 등	
IV	그림 및 사진(Iconography), 26 × 21 cm.	
V	그림 및 사진(Iconography)	
VI	그림 및 사진(Iconography), 36 × 28 cm.	
VII	그림 및 사진(Large iconography)	
VIII	그림 및 사진(Iconography)	
IX	방명록 카드	

19) 검색도구(Guide to the Arthur M. Abell Papers JOB 88-4)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자료 등 텍스트 기록뿐 아니라 시각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리즈는 ABT의 초기 50년사(1940-1990)를 포괄한다. 이 컬렉션은 ABT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소장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증받아 축적되었다. 이 컬렉션의 정리체계는 <표 12>와 같다. 한 조직의 기록이지만 정리체계를 잡을 때에, 특히

시리즈 계층을 설정할 때에는 ABT가 업무에서 사용하였던 파일구조를 반영하기보다는 기증받은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능 구분을 기반으로 질서를 재구성하였다.

창작활동은 아니지만 예술과 관련된 활동, 즉 연구나 방송제작 등을 위하여 기록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집자의

<표 12> 미국발레시어터 컬렉션의 정리체계(NYPL)<sup>20)</sup>

no	시리즈			내역
I	Ballet Theatre Foundation			1상자. ABT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1947년 설립된 Ballet Theatre Foundation 기록
	no	하위시리즈	내역	
	I	행정 파일	5개 폴더. ABT의 재정 현황과 필요자금을 요약한 연차보고서, 모금활동 안내장	
II	출판물	13개 폴더. 잡지 On Point에 실린 ABT 활동과 Ballet Theatre Foundation의 창립자 관련 기사		
II	전기 파일			2상자. ABT 무용수들의 홍보 사진, 기타 전기 정보
III	프로덕션 사진			5상자. ABT의 공연 사진. 대형자료 포함
IV	프로그램			5상자. ABT 공연을 위한 광고전단, 프로그램, 배역 정보, 공연 취지서 포함
V	홍보			12 상자
	no	하위시리즈	내역	
	I	보도 자료	23개 폴더. ABT 공연과 무용수들에 관한 보도 자료	
	II	보도 서신	8개 폴더. 보도 및 홍보 관련 서신	
	III	기자회견 자료집	45개 폴더. 시즌별로 생산되는 기자회견 자료집. ABT 무용수들, 공연될 발레작품에 관한 배경정보가 담김. 단체 약력이 발레역사에 관한 포괄적인 기록과 함께 포함되는 경우 많음	
IV	보도 클리핑	69개 폴더. ABT 공연에 관한 뉴스 클리핑과 잡지기사		
VI	기념도서			5상자. 갈라 공연 및 연례행사, 각 시즌별 ABT 주요 활동을 담은 기념도서 등

20) 검색도구(American Ballet Theatre Collection)를 참조하여 표로 작성.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정리체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공연예술 도서관 및 박물관(San Francisco Performing Arts Library and Museum)이 소장한 남미의 무용 양식에 관한 컬렉션 정리체계를 예로 들 수 있다. “Boehm/de Leon Collection, 1931-1980”은 Marissa de Leon과 Leah Marie Boehm이 남미의 춤 양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1930대-1950년대에 수집한 자료들로 뉴스 클리핑, 악보, 춤 그림, 브로셔, 팸플릿, 보고서, 삽화, 사진, 노래 책, 메모, 녹음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정리가 국별로 구분되는데(I. 아르헨티나, II. 브라질, III. 칠레, IV. 콜롬비아, V. 코스타리카, VI. 에쿠아도르, VII. 파라과이, VIII. 페루, IX. 우루과이, X. 남미 일반), 이는 생산자로서 Boehm과 de Leon이 연구를 위해 정리해놓은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Eye on Dance 컬렉션’은 무용을 주제로 한 특정 TV프로그램에 관한 기록 컬렉션 사례이다. Eye on Dance는 발레, 탭댄스, 브레이크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무용과 관련된 인터뷰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981년-1992년에 뉴욕의 WNYC와 WNYE에서 방송되었고, 프로그램에서 다룬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자료, 프로그램, 클리핑 자료, 시리즈 대본 일부, 비영리 예술조직의 업무 파일 등이 포함된 이 컬렉션은 회차별 연구자료, 대본, 보도자료, 프로그램, 클리핑 자료, 업무 파일 등 6개의 시리즈로 조직되어 있다. 회차별 연구자료는 프로그램의 준비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담고 있으며, 기록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생산자가 업무편의를 위하여 정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이 TV 프로그램은 미국 무용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매회 1-2개의 인터뷰, 이전의 공연이나 세트장에서 촬영한 공연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이 기록컬렉션에는 인터뷰 및 방송 제작을 위한 연구자료, 대본, 보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스튜디오 일정표 외에 제작 자료는 거의 없다.

### 3.2.2 국립극장의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sup>22)</sup>

국립극장은 공연정보, 공연자료, 예술인정보, 디지털 아카이브와 같이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공연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공연을 촬영한 영상, 음향 자료 등의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3개 범주는 아날로그 형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범주별로 연극, 창극, 무용, 음악, 국악, 전통연희, 판소리, 발레, 오페라, 뮤지컬, 합창, 기타 등 주제별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박성욱 2009).

국립극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물론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교향악단 등의 공연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자료의 유형은 영상, 포스터, 사진, 프로그램, 무대디자인, 음향 등으로 공연의 모습이 담긴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무대디자인 자료만이 공연준비과정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

21) 검색도구(Guide to the Eye on Dance Records) 참조.  
22) <<http://archive.ntok.go.kr/index.jsp>>. [2011.10.30 접근].

다. 공연장르, 자료유형, 공연단체별 하위 분류 체계는 <표 13>과 같다.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경우 집합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연장르별, 자료유형별, 공연단체별로 각각 제한하여 공연작품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통합검색창을 이용하여 키워드로 검색하면, 자료유형별로 목록이 디스플레이 된다. 공연작품별로 관련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3.2.3 한국춤문화자료원<sup>23)</sup>

한국춤문화자료원은 2007년 타계한 전통무용가이자 교육자인 김천홍 선생(1909-2007)의 기록 기증을 계기로 준비가 시작되어, 우리나라 춤 자료를 수집·보존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2009년 정식 출범하였다. 개인 예술가 중심의 개인 컬렉션과 무용 기관 및 단체 중심의 기관 및 단체 컬렉션, 기타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장 컬렉션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컬렉션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현재 디지털 춤 아카이브에서는 주로 김천홍 컬렉션을 중심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김천홍 컬렉션은 1) 공연 프로그램, 2) 무보 및 대본, 3) 포스터 및 전단, 4) 신문 및 잡지기사, 5) 영상 및 음악, 6) 의상 및 소품, 7) 사진, 8) 서신, 9) 상별, 10) 소장물품, 11) 생활물품, 12) 문헌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료 형태별 분류를 채택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유시현 등 2009).

키워드 검색 및 형태 등을 통한 제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었고, 검색건수가 앞서 밝힌 기록형태별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컬렉션의 분류체계에 따라 계층적, 집합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다. 가령 '처용무'로 검색하면 "프로그램(5) 무보 및 대본(0) 포스터 및 전단(0) 의상 및 소품(1) 신문 및 잡지기사(11) 영상 및 음악(20) 사진(16) 서신(2) 상별(0) 소장물품(1) 생활물품(1)" 등과 같이 검색건수가 나타나고 이러한 형태별로 건별 목록을 볼 수 있었다. 각 건에는 기록의 형태별 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있었다.<sup>24)</sup> 그러나 건별 목록만 나열되어 그 건이 어떤 컬렉

<표 13> 국립극장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분류기준	분류체계
공연장르별	연극(137), 창극(94), 판소리(0), 무용(69), 국악관현악(42), 발레(74), 오페라(79), 합창(81), 교향악(128), 기타(51)
자료유형별	영상(254), 포스터(762), 사진(637), 프로그램(872), 무대디자인(81), 음향(203), 기타(0)
공연단체별	국립극단(137), 국립창극단(95), 국립무용단(70), 국립국악관현악단(40), 국립발레단(75), 국립오페라단(78), 국립합창단(82), 국립교향악단(134), 기타(0)

주: 괄호 안 숫자는 작품 수(2011년 10월 30접근 현재)

23) 한국춤자료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drc.or.kr/new\\_main.html](http://www.kdrc.or.kr/new_main.html)>.

24) 키워드 '처용무'로 검색한 결과 각 건에 프로그램(P1-PRG-일련번호), 신문잡지기사(P1-NSP-일련번호), 의상 및 소품(P1-COS-일련번호), 영상 및 음악(P1-FNS-일련번호), 사진(P1-PHO-일련번호), 서신(P1-CRS-일련번호), 소장물품(P1-COL-일련번호), 생활물품(P1-MIC-일련번호)등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었음.

선에 속해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sup>25)</sup>

기록건을 행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분류체계를 이용하고 있었고, 맥락이나 출처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으로서의 정리체계는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 3.2.4 문화포털의 디지털 아카이브<sup>26)</sup>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포털도 예술기록을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과거 예술로 사업(2000~2006) 진행기간 중 2003년도에 단

기간에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현재 연극공연장(소극장공간사랑), 연극제(춘천인형연극제), 연극작품(날보러와요), 평론가(이상일)를 중심으로 4개의 기록컬렉션이 구축되어 있다. 문화포털의 경우에도 계층적이거나 집합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컬렉션별로 ‘수록자료와 내용’ 페이지를 마련하여 컬렉션에 포함된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다(〈표 14〉 참조).

컬렉션 전체에 대한 통합검색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컬렉션별로 다양한 조건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각 컬렉션은 “하나의 예술

〈표 14〉 문화포털 디지털아카이브의 컬렉션 내역

컬렉션	수록 자료
소극장 공간사랑 (1977~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장의 주제가 사실상 사라져,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합하여 연도와 자료형태별로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연연보를 재구성</li> <li>- 공연 팸플릿, 공간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사진자료, 공간지에 게재된 공연리뷰</li> <li>- 소극장 공간사랑의 기획을 맡아 활동했던 강준혁 선생 인터뷰 동영상 제작</li> </ul>
춘천 인형연극제 (1980~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춘천인형연극제의 기획서, 회의록, 결과 보고서, 각종 신청서 등 축제 실무 관련 자료</li> <li>- 보도자료, 포스터, 가이드북(팸플릿), 입장권, 캐릭터 디자인, 기념품 시안, 축제기간 중 만들어진 일일신문 등 각종 홍보물, 공연 해설집 외 기타 자료집,</li> <li>- 축제의 여러 모습과 공연의 주요장면을 담은 영상물, 축제 참가자들의 인터뷰 등</li> </ul>
날보러와요 (1996~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2.20. 문예회관 소극장(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초연이후 2006년 8월까지 11번의 프로젝트에 약 450여 회 공연된 작품에 대한 기록</li> <li>- 〈날보러와요〉의 시기별 공연·연습장면, 인터뷰 등을 담은 영상자료</li> <li>- 극창작 워크숍 일지, 당시 사건 담당 형사와의 면담 일지 및 사건 자료, 공연되지 않은 〈날보러와요〉의 초고·연출/연습일지 등 작품의 탄생과 초연에 관련된 자료</li> <li>- 팸플릿, 포스터, 전단, 보도자료 등 각종 홍보물</li> <li>- 시기별 공연 및 연습 사진, 배우와 작가의 친필자료, 무대도면 및 디자인 스케치 외에 연습일정표와 기획서 등 공연 준비 과정과 관련된 문서 자료</li> </ul>
평론가 이상일 저술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평론가 이상일의 평론활동과 관련된 저술 중 연속간행물, 학술지 등에 기고된 짧은 글들을 중심으로 수집</li> <li>-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극평론〉, 〈주간조선〉, 〈뿌리깊은 나무〉 등 연속간행물에 게재되었던 공연평</li> <li>- 이상일의 주요 연구 영역이었던 놀이문화와 축제에 관한 저서에 수록된 짧은 논문</li> </ul>

25) 입수출처(김정완)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김천홍 컬렉션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임.

26) 〈<http://www.culture.go.kr/art/knowledge/archiveInfo01.jsp>〉. [2011.11.1 접근].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산출물들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활동의 궤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통해 생산된 사진, 문서, 동영상 자료를 포함하며, 이를 시대, 장르 등 다양한 분류로 구성”하였다(표 15)(〈표 15〉 참조).

분류 기준에 따라 기록의 물리적 집합체가 구성되는 개념이 아니며, 연도, 장르, 자료형태 등의 분류기준 간에는 상하 계층 관계나 우선 순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기준에 따른 분류 값이 기록건에 모두 적용하여, 검색시 각 분류 기준 별로 검색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즉, 세 개의 기준이나 두 개의 기준을 결합하거나(연도와 자료형태, 연도와 장르, 장르와 자료형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3 예술종합아카이브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로는 국립예술자료원을 들 수 있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예술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예술 창작 및 연구와 교육에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이며 197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예술기록보존전문기관이다. 기증자료들은 컬렉션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내역은 〈표 16〉과 같다. 그러나 컬렉션에 대한 정리체계나 검색도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국립예술자료원은 2011년부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공연영상, 희곡 대본, 미술작품에 대한 검색 및 디지털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작품의 경우에만 장르별 분류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건별로 브라우징

〈표 15〉 문화포털 디지털아카이브의 분류

컬렉션	분류기준	분류체계
소극장 공간사랑 (1977~1990)	연도	1977년부터 2년 단위 분류(77-78, 79-80, 81-82, 83-84, 85-86, 87-88, 89-90, 2006)
	장르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자료형태	홍보물, 사진, 기사, 동영상/음원, 기타
춘천 인형연극계 (1980~2006)	회차	회차별(1회~18회)
	행사유형	종합, 개막행사, 공연, 부대행사, 폐막행사, 기타
	자료형태	가이드북/리플릿, 포스터, 자료집, 공문서, 기타 문서류, 기타 홍보물, 사진, 영상물, 관련기사, 기타
날보러와요 (1996~2006)	공연연도	연도별(1996년~2006년)
	극장	정동극장, 문예회관 소극장, 연주소극장, 바탕골 소극장, 동승아트센터 동승홀, 아롱구지 소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 예술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동승아트센터 소극장, 기타
	자료형태	사진, 홍보물, 연습/연출일지, 관련기사, 논문, 기타 문서류, 공연동영상, 기타동영상, 대본
평론가 이상일 저술선	저술연대	연대별(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저술형태	공연평, 문화시평, 논문, 기타
	간행물별	신문, 잡지, 도서, 기타

27) 〈http://www.culture.go.kr/art/knowledge/archiveInfo02.jsp〉. [2011.11.1 접근].

〈표 16〉 한국예술자료원의 기증기록 컬렉션 현황<sup>28)</sup>

기증자명	내 용
르네상스 음악자료 (박용찬)	박용찬님이 종로에서 운영하던 고전음악감상실 르네상스에서 소장하던 음반과 도서 및 기자재 등
김대현 문고	일본어로 쓰인 '세계음악대전집' 등 음악관련 일본서적 약 500권
초곡 문고	영문학자 이정기님이 영·미문학 전문 서적 및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도서 및 국내 현대 문학 도서 등 총 2,376권의 도서
김영태 기증자료	- 시인, 무용평론가, 화가이며 음악동인지 발간 등 전방위에서 예술 활동을 한 김영태 선생이 2005년 2만여 점 1차 기증 - 시집, 무용평론집, 산문 및 시론집 14권, 개인애장품, 캐리커처 80점 - 1956년부터 연도별로 정리한 무용관련 기사 스크랩 및 공연 팸플릿, 포스터 - 별세 후 7,600여 점의 자료 2차 기증
육완순 기증자료	2006년 육완순 선생이 1,550점 기증. 외국서적, 단행본 597권, 공연영상기록 등 486점, 무용관련 저서와 팸플릿 400여 점 등 포함
창악회 기증자료	1958년 설립되어 600여곡의 창작곡을 초연한 작곡가 단체로 녹음자료, 발행음반, 팸플릿 등 창악회 기록자료 1,000여 점 기증
홍신자 기증자료	세계적인 전위무용가이며 작가인 홍신자 선생이 2008년 공연영상자료 450여 점, 추후 공연사진기록 등 소장 자료 추가 기증
기타	[무용] 고 임성남, 국은미, 김명수, 김태원, 이병임 이철진, 천승요, 최은희, 하정애, 허용순 [음악] 고 김천홍, 강순미, 박성연, 박중휘, 이만방, 전명선, 전인평, 조윤범 [연극] 고 강유정 고 정원지, 유진규, 이영미 [미술] 고 전혁립, 김수범, 안필연 [전통예술] 문순실, 양종승 국립국악원, [기타] 국립극장, 그립 동시대, 극단 가변, 극단 로덴, 극단 미추, 극단 백수광부, 극단 아리랑, 극단 우금치, 극단 자유, 극단 작은파티, 극단 청우, 극단 파티, 극단 풍경, 김상열연극사랑회, 밀물현대무용단, 박건희문화재단, 살롱화요동우회, 서울연극협회, 서울예술단, 아시아전통예술제, 연우무대, 용음회,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정은혜민족무용단, 정제연구회, 창악회, 학교재미술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무대미술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합동정월 이수자회, 현대무용단 사포, 국제현대무용제(MODAFE) 등

자료: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10), 23-24쪽에서 재인용.

하거나 검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근 문화예술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등에서 예술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특정 지역문화예술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 보존,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면 지역예술에 관한 종합 아카이브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예술아카이브를 찾기는 어렵다. 가령, 부산문화재단이 서비스 중인 문화예

술아카이브에서는 부산의 문화예술인, 단체, 축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서 기록이라는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라고 보기 어렵다.

### 3.4 분석종합

#### 3.4.1 소장기록의 유형과 특징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분야의 아카이브들을 살펴보았는데, 각 분야마다 정리나 분류체계

28) 〈<http://www.knaa.or.kr>〉. [2010.11.1 접근].

상의 특징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장기록의 유형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경우 실황을 담은 시청각기록의 비중이 높고, 시각예술아카이브의 경우 예술작품 자체나 본 작품을 위한 스케치 등과 같이 예술작품에 준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는 전시회 관련 시청각기록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양 아카이브 모두 구술 및 인터뷰 기록을 중요한 수집·생산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기관별 기록컬렉션의 구성 기준과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형 및 매체를 개

괄하면 <표 17>과 같다.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경우, 컬렉션의 출처는 미술가, 미술가의 지인 및 동료, 수집가, 미술관, 화랑, 미술관련 단체 등이며 미술가별 컬렉션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은 본격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수집물도 특정 유형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경우, 무용가, 연주자 등의 예술가, 공연 및 연주단체, 평론가 및 연구단체 등의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극장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공연작품을 중심으로 특정 유형

<표 17> 소장 기록컬렉션의 특징

	기관	기록컬렉션의 구성	기록유형 및 매체
시각 예술	미국미술 아카이브	- 출처별 컬렉션(미술가, 미술가 그룹, 미술관, 미술단체 및 협회, 미술학교 등) - 구술기록 컬렉션	서신, 메모와 저술, 사진, 아트워크, 인쇄자료, 녹음자료, 전시 팸플릿, 도록, 미술관 및 단체의 행정기록 등
	국립현대미술관	- 출처별 컬렉션 없음 - 기록유형별로 구분	전시팸플릿, 기사, 슬라이드, 시청각자료, 도록 및 출판물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 출처별 컬렉션(백남준의 작업동료 및 작업지원업체, 갤러리 등) - 구술사 기록 - 비디오 컬렉션(필름/비디오)	서신, 아트워크, 스크랩, 출판물, 사진, 오브제(물건류), 시청각자료
공연 예술	뉴욕공연예술 도서관	- 기록컬렉션 관리부서(division)를 춤, 음악, 녹음자료, 연극기록으로 구분 - 출처별 컬렉션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공연실황 및 인터뷰 아카이브(TOFT) 별도 관리	서신, 공연관련 보도자료, 프로그램, 대본, 공연실황 관련 시청각기록(사진, 녹음, 녹화자료), 개인기록(서신, 메모, 사진), 행정 문서
	국립극장 디지털 아카이브	- 출처별 컬렉션 없음(국립극장의 현재 및 과거 전속단체의 공연자료 수집) - 공연작품별 분류	영상, 포스터, 사진, 프로그램, 무대디자인 기록, 음향
	한국춤문화자료원	- 김천홍 컬렉션	공연프로그램, 무보/대본, 포스터/전단, 신문/잡지기사, 영상/음악, 의상/소품, 사진, 서신, 물건, 도서 등
	문화포털 디지털아카이브	- 출처별 컬렉션(공연장, 축제, 작품, 평론가 등 4개 컬렉션)	행정기록, 공연 및 연습과정의 동영상기록, 팸플릿, 프로그램, 보도자료 및 기사, 사진, 무대디자인, 평론 등
종합	국립예술자료원	- 기증자별 컬렉션 - 공연영상, 희곡 대본, 미술작품의 디지털화 자료(디지털 아카이브)	- 공연영상, 희곡 대본, 미술작품의 디지털화 자료(디지털아카이브) - 개인 및 단체기록(미정리)



의 기록이 중점적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국립 예술자료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역시 공연 영상, 희곡 대본, 미술작품에 제한된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어, 보다 확장된 컬렉션의 구축이 요망된다.

문화포털 아카이브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예술작품, 예술행사/축제, 공연작품을 중심으로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집하여 컬렉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연예술아카이브가 수집할 수 있는 인위적 컬렉션의 유형은 <표 18>과 같다. 아울러 문화포털 아카이브는 각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3.4.2 계층적 정리

미국의 아카이브들에서는 대체로 출처에 따라 컬렉션을 구성하고, 원질서를 존중한 정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시리즈, 하위 시리즈, 파일 등 3-4계층 이하의 깊이를 가진 컬렉션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개인기록컬렉션의 경우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유형에 따라 시리즈를 구성하되 파일 이하의 계층은 비교적 원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예술단체 등의 조직기록은 상대적으로는 업무활동을 반영한 체계를 갖춘 듯이 보이지만,

조직기록이면서도 개인기록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기록유형별 시리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국내 예술아카이브의 경우, 백남준 아트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출처나 원질서를 존중한 정리체계를 채택하는 대신 건 중심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고, 집합적 기술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많은 예술아카이브가 기록을 건 단위로 수집하거나 한 출처로부터 기록집합체를 수집했다 해도 이를 건 기록의 총합으로 인식하여, 건 단위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처 및 원질서를 존중한 정리작업 없이 기록건을 대상으로 사후적 분류만을 적용할 경우, 원래 생산자의 흔적이 유실되어 예술기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표 19> 참조).

### 3.4.3 분류 및 정리체계의 검색활용성

기록의 정리 및 집합적 기술이 검색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층별 정리와는 별도로 기록에 대한 주제 검색이나 토픽별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AAA 등 미국아카이브의 경우 2단계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AAA는 토픽 등의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컬렉션을 브라우징할 수

<표 18> 인위적 기록컬렉션 구축 사례

유형	설명
예술가/예술단체	특정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관한 기록을 수집
공연장	예술사적 의미가 있는 공연장 관련 기록(예: 소극장 공간사랑)
예술작품	특정 작품에 관한 기록(예: 연극 날보러와요)
예술행사/프로그램	연극제 등의 행사나 공연작품별로 기록 수집 출천인형극제, 공연작품(국립극장)

〈표 19〉 계층적 정리와 집합적 기술 현황

	기관	기술 계층	정리(배열) 체계
시각 예술	미국미술아카이브	컬렉션-시리즈-하위시리즈-파일/건	출처 및 원질서 원칙
	국립현대미술관	건	유형별 자모순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컬렉션-시리즈-파일/건	출처 및 원질서 원칙
공연 예술	뉴욕공연예술도서관	컬렉션-시리즈-하위시리즈-파일/건	출처 및 원질서 원칙
	국립극장 디지털 아카이브	건	-
	한국춤자료원	건	-
	문화포털 디지털아카이브	컬렉션, 건	출처 원칙
종합	국립예술자료원	건	-

있도록 하고, 특정 컬렉션을 선택하면 검색도구로 연계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컬렉션 내에서의 정리체계는 검색도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뉴욕공연예술도서관은 일반자료와 기록(컬렉션 계층)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여기서 다시 컬렉션별 검색도구로 연계해주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백남준 아트센터도 유사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효율적 검색을 위하여 몇 가지 분류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기록건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류는 기록의 물리적 배열과는 관계가 없으며, 유형, 생산시기, 장르 등의 속성을 기록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속성이 같은 기록건들을 모으기 위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기록 유형이 전시나 공연 팸플릿, 프로그램, 공연실황, 디지털화 예술작품 등과 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체로 정형화된 속성값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속성별 제한 검색(필터링)이나 조합검색을 할 수 있다. 사례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국립국악원의 경우

장르구분에 기초하여 개발한 3계층의 전통예술 분류체계를 개발한 바 있다(국립국악원 2008, 88-101,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에서 재인용). 국립예술자료원은 자료유형별로 검색을 하도록 하였고, 디지털화된 미술작품을 찾을 때는 장르 분류를 이용할 수 있었다(〈표 20〉 참조).

또한 미국사례에서 기록컬렉션에 대해서는 대체로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한 계층적 관리와 집합적 기술을 하고 있었지만, 공연이나 전시 실황, 방송프로그램 등이 담긴 시청각 자료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도서정보시스템을 통한 건별 목록 검색을 지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뉴욕공연미술도서관뿐 아니라 백남준 아트센터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부재했기 때문에 기록이 소실되거나 흩어져버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술아카이브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수집하여 컬렉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문화포털 아카이브와 같이 컬렉션에 맞는 분류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을 집합적으로 기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0〉 분류 및 정리체계를 활용한 검색

	기관	브라우징	검색시스템 및 검색도구
시각 예술	미국미술 아카이브	간략한 테마 분류체계에 따라 컬렉션 브라우징 가능 출처명 알파벳순 브라우징	- 통합온라인목록(SIRIS)을 통해 컬렉션계층 기술, 팸플릿형 검색도구(finding aids) 탐색가능 - 컬렉션계층 목록에서도 검색도구로 링크 - 검색도구를 통해 컬렉션 내의 상세 기록 내역 확인가능
	국립현대미술관	-	- 비도서검색 기능에서 전시 관련 팸플릿, 엽서 검색 가능 (검색필드: 전시회 유형, 자료명, 참여작가명, 전시기간)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현재 정리된 컬렉션 전체(3개) 브라우징	- 도서관통합목록에서 컬렉션계층 목록 검색 - 컬렉션 검색도구 제공
공연 예술	뉴욕공연예술 도서관	부서별 컬렉션 브라우징	- 온라인통합목록(NYPL OPAC)을 통해 컬렉션 계층 기술, 검색도구(guides) 탐색가능 - 검색도구를 통해 컬렉션 내의 상세 기록 내역 확인가능 - 공연실황 및 인터뷰 아카이브(TOFT) 기록은 OPAC에서 건별 검색
	국립극장 디지털 아카이브	공연장르, 자료유형, 공연단체별 작품 브라우징	- 공연장르, 자료유형, 공연단체별 키워드 검색
	한국춤문화자료원	-	- 기록유형(형태)별 검색
	문화포털 디지털아카이브	4개 컬렉션 전체	- 컬렉션 내에서 검색가능 - 분류기준별 조합검색, 제한검색 가능
종합	국립예술자료원	-	- 공연영상, 회곡 대본, 미술작품별 검색 - 미술작품은 장르별 분류기준에 따라 제한 검색 가능 - 개인기증컬렉션별에 대한 온라인 검색도구 제공 안함

#### 4. 제언 및 맺음말

예술기록의 정리 및 분류와 관련하여 국내 예술아카이브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예술기록은 출처 및 원질서를 존중하여 정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관리 및 보존 측면에서는 기록유형이나 매체별로 정리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기록의 생산맥락을 보호하려면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같은 악보라도 유명 지휘자의 메모가 적힌 악보와 단원이 가지고 있던 악보는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를 것이다. 또한 기록계층별로 집합적 기술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술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보존기록관리기관들은 건 중심의 목록체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록의 누락을 방지하고, 기록 본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집합적 기술을 회피하고 건별 통계가 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양적 성과주의의 반영물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예술 및 기록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아키비스트가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립극장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록유형별로 정형화된 목록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각 공연단체의 활동을 보여주는 있는 기록화를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둘째, 공연영상, 디지털화한 미술작품, 대본 등과 같이 대중성이 있는 예술자료뿐 아니라 예술작품이나 예술가 연구에 필수적인 창작과정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록의 비중이 큰 시각예술아카이브의 경우, 예술가나 예술가의 지인, 동료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이에 대한 출처별 정리체계를 개발·유지해야 할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공연단체나 극장 등의 조직이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경우 기록화정책에 따라 기록이 생산 직후 획득될 수 있도록 한다. 뉴욕공연예술도서관의 경우처럼 공연단체와 협력하여 영상기록화 작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공연예술가나 평론가들의 개인기록은 추후 계획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관받거나 수집된 기록컬렉션은 출처 및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수집해야 할 예술기록 컬렉션의 유형은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출처는 기록을 생산, 접수, 수집한 주체를 의미

한다. 출처는 하나의 컬렉션을 구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특정 유형의 기록을 골라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잔존하고 있는 전체를 원래의 모습대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정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기록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된 기록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역시 출처는 존중하여 정리하되 메타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표 21> 참조).

셋째, 분류를 통해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록의 유형과 매체, 주제, 예술장르 등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컬렉션 검색도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보자료와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정보자료에 대한 분류체계를 기록컬렉션에도 적용함으로써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한 정리를 통해 증거 가치를 보존해야 하지만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속성별 분류를 병행

<표 21> 수집대상 기록컬렉션의 유형

출처 유형	기록 컬렉션의 성격
예술가	서신, 사진, 일기, 작가 노트, 스케치, 아트워크, 악보 등 예술가가 예술 활동 및 기타 개인생활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기록과 자료
예술가의 지인	서신, 사진, 아트워크, 스크랩 등 예술가의 배우자나 가족, 친구, 동료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예술가협회 및 단체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활동기록과 행정기록, 전시 자료 등
공연단체, 전시단체, 유통단체	조직이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수집한 기록, 공연영상 및 녹음기록, 전시 프로그램, 공연대본, 공연용 악보, 무대설치 자료, 기기 구성 및 세팅 자료, 안무 자료, 음악/음향 자료, 의상/메이크업 관련 자료, 전시도록 및 팸플릿
연구자/비평가	연구나 평론을 위해 수집한 예술가, 예술작품에 관한 기록. 때로는 특정 예술장르나 특정 지역, 특정 주제의 예술을 중심으로 수집한 기록
예술기록관리기관	예술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수집, 관리, 활용, 보존업무와 관련된 기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도적 수집을 위하여 개발한 분류체계의 경우, 이를 정리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수집된 기록조사를 토대로 정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밖에 동영상기록, 구술기록 등 계획적으로 생산한 특정 유형의 기록에 대해서는 건별 검색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유일성 가치가 낮고 대중적 이용도가 높은 시청각자료(공연영상이나 녹음자료)는 매체별로 관리하고 정보검색시스템으로 통해 건별 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출처별 컬렉션과의 연계성을 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보관리의 관점에서 예술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논의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교적 근래의 현상이다. 기록관리에 있어서 정리는 기록 검색은 물론 예술가 및 예술활동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의 예술아카이브도 기록의 출처가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집합적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건과 건의 관계, 기록의 배열에 남겨진 예술가의 흔적을 가치 있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국악원. 2008. 『전통예술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 권소현, 김익한. 2010.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173-214.
- 대통령기록관. 2009.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 업무 지침, 2009. 11.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과.
- 박민구. 2008. 『민간 극단의 연극기록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애. 2009. 미국 미술 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예술 아카이브 시리즈 3). 『웹진 아르코』, 제128호(2009. 2). [2011. 11.1 접근].
- 박성욱. 2009. 『공연예술 자료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미디어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연진. 2007. 『예술아카이브의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메타 기관 형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석. 2011. 예술기록의 특징.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강의교재,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 설문원. 2010. 기록의 분류와 기술.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개론』, 개정판 제5장. 서울: 아세아문화사.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조직화와 분류. 『예술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 강의교재,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손동유. 2011. 예술기록 수집전략과 평가기준. 『예술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 강의교재,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유시현 등. 2009. 예술가 개인컬렉션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출처자료 분류체계 연구: 김천홍 컬렉션을 중심으로. 유시현, 권혜경, 김현주, 최해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7: 117-144.

위키백과. “예술”  
<<http://ko.wikipedia.org/wiki/예술>>. [2011.11.1 접근].

임석진 외 편저. 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장지원. 2009. 뉴욕공연예술도서관(예술 아카이브 시리즈 10). 『웹진 아르코』, 제135호 (2009. 5). [2011.11.2 접근].

정명주. 2006.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은진. 2009. 연극의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115-150.

정혜린, 김익한. 2009.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0(2009.4): 151-212.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국악아카이브 구축 전략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국립국악원. 2010. 8.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예술자료관리 전문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국립예술자료원.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Hobbs, Catherine. 2010. Reenvisioning the Personal: Reframing Traces of Individual Life. In: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Mil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 <검색도구>

A Finding Aid to the ACA Galleries Records, 1917-1963, in the Archives of American Art by Jayna M. Hanson, August 2008.

A Finding Aid to the Gertrude Abercrombie papers, circa 1880-1986, bulk 1935-1977, in the Archives of American Art by Catherine S. Gaines July 31, 2007.

American Federation of Arts: A Finding Aid to the American Federation of Arts Records, 1895-1993 (bulk 1909-1969), in the Archives of American Art by Wendy Bruton and Barbara D. Aikens, 2000.

Finding Aid for Irma Duncan papers, 1905-1977, Jerome Robbins Division.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Finding Aid of) American Ballet Theatre Collection, Museum of Performance & Design, July 2009. Processed by Marianne Carden(1994); Allison Gillette(2009).

-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Guide to the Arthur M. Abell Papers JOB 88-4, Music Divisio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Guide to the American Tap Dance Orchestra records 1988-1995 (S), \*MGZMD 271  
Compiled by Laura Slezak Karas, August 2011. Jerome Robbins Dance Divisio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 Performing Arts.  
Guide to the Eye on Dance Records, 1966-1995, (S)\*MGZMD 180, Processed by Lee Spilberg, 2006. Jerome Robbins Dance Divisio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Inventory of the Boehm/de Leon Collection on South American Dance Forms, San Francisco Performing Arts Library and Museum, 1997.